

양곡법·전세사기특별법... 총선 앞 손 놓은 민생법

여야, 수출입은행법·지역의사제법 등 대처... '2+2 협의체' 빈손 이번주 본회의 테드라인... '중재법 유예' 재협상 여부도 불투명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정작 주요 민생법안 입법은 표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 등 여야 텃밭의 표심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는 의기투합하면서도 여야가 우선시하는 쟁점 민생법안을 두고는 섀벨을 달리하며 끝장 대치만 반복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1월 입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각종 민생 법안은 본회의 문턱에도 오

르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이달 말부터 여야가 공천 심사 일정에 본격 돌입하고, 설 명절 연휴가 끼여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달 1일 본회의가 총선 전에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테드라인인 셈이다.

하지만, 여야가 지난해 12월 띄운 쟁점법안 논의 기구인 '2+2 협의체'는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났고, 현재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상태여서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가 각자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

는 민생법안 자체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실상 이번 제21대 국회에 처리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 등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꼽고 있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인데,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반년 넘게 표류 상태다.

그 사이 폴란드와 맺은 30조원 규모 무기 수출 계약이 무산 또는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비슷한 내용

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당내 일각에서 대형 방산업체에 특혜를 몰아줄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도 민생법안으로 내세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역의사제법 제정안 등을 앞세운다.

전세사기특별법과 지역의사제법은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된 상태지만 여당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설 요구에 대해선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만 양산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신설하든 아니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정부·여당이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내달부터는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 일정에 돌입하는 만큼 재협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만 정치권에서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지목했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간 극적 합의 가능성이 엿보여 주목된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가 28일 국회에서 회의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탈당파·이낙연 '개혁미래당' 공동 창당

'새로운미래'·'미래대연합' 결합... 다음달 4일 중앙당 창당대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새로운미래'가 민주당을 탈당한 이들이 만든 '미래대연합'과 합치기로 했다.

박원석 미래대연합 공동대표와 신경민 새로운미래 국민소통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혁파와 정치혁신, 사회 개혁과 미래 전환에 나서라는 국민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고자 공동 창당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통합 정당의 기칭 '개혁미래당'에 대해 정치개혁, 사회개혁, 민생 개혁 등 개혁을 선도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주

부터 정강 정책과 선거공약을 선보이겠다고 '민주주의', '민생', '미래'가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통합 논의를 이어오던 두 세력은 이 전 대표의 출마 문제 등을 두고 이견이 감지됐으나 통합이 더 늦어지면 총선에서 파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후 예정된 새로운미래 사·도당 창당대회는 양당의 통합 창당대회의 성격을 갖게 되며 다음달 4일 개혁미래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 탈당 인사들의 공동 창당으로 향후 '제3지대 빅텐트' 통합 속도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7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광주시장 창당식에서 "국가로부터, (민주)당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께 갚아드리기 위해서 이 길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과 민주당이 잘못 가고 있는데 아무 소리 않고 묵인해 준다면 당과 국가로부터 혜택받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한 몸 던져서라도 민주당이 더 이상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khn@kwangju.co.kr

총선 브리핑

신정훈 "나주·화순 민심 최우선 살피겠다"

나주·화순 예비후보

신정훈 민주당 나주·화순 예비후보는 지난 27일 자신의 나주 지역사무소에서 경선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총선 선거운동을 본격화했다.

신 예비후보는 이날 출범식에서 "민심을 돌보고 민생을 살리겠다"며 캠프명을 '민생캠프'로 정하고, 전·현직 도의원과 나주시의원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참여시켰다.

신 후보는 "나주·화순의 발전, 민주당의 혁신,



갈 예정이다.

/김지승 기자 dok2000@kwangju.co.kr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로 승부하겠다"며 "나주시민과 화순군민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신 후보는 경선 선대위 출범식에 이어 직능별, 읍·면·동별 선대위 출범식을 이어

문금주, 보성향토시장 찾아 상인과 대화

고흥보성장흥강진 예비후보

문금주 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 예비후보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7일 녹차골 보성향토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대화하며 민심을 청취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해결을 약속했다.

문 예비후보는 5일장이 열린 보성향토시장에서 떡집, 수산물 판매 코너 등을 돌며 고물가·고금리 시대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지역 상권



/김지승 기자 dok2000@kwangju.co.kr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시장 환경 개선 및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지지 호소했다.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문지점 062)513-8521~3	동문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